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LUD-IN-THE-MIST

가제 : 안개에 묻힌 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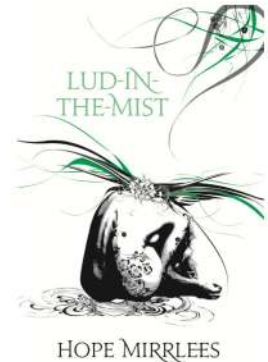
저자 : Hope Mirrless

출판사: Millennium

발행일: 2000년

분량 : 273 페이지

장르 : 소설



1926년 첫 출간된 고전 판타지 소설, 요정의 나라에서 법과 질서의 나라로 흘러든 빨간 과일

자유 국가 도리메어는 규모는 아주 작지만 남쪽에는 바다가 자리하고 북쪽과 동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중심부는 두 개의 강이 관통하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어 다양한 풍경과 다채로운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눈에 띄는 특징은, 서쪽 국경으로 갈수록 갑자기 열대지방이 된 것처럼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 풍경이 펼쳐져서, 목가적이고 평온한 분위기가 가득한 대초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바로 도리메어 서쪽 국경, ‘논란의 언덕’ 너머에는 요정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메어와 요정의 나라 사이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일체 교류가 없었다.

도리메어의 사회적, 상업적 중심지는 수도인 ‘안개에 묻힌 루드’이다. 바다로부터 10마일, 엘핀 언덕으로부터 50마일을 흘러 내려온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도시다. 역사 깊은 국가 도리메어에 즐거움을 불어넣는 요소들은 모두 이 안개에 묻힌 루드에 모여 있다. 그윽한 금빛 벽돌로 지어져 덩굴이 온통 뒤덮은 길드 집회소는 태양빛을 받으면 썩은 살구를 연상케 했고, 항구에는 하얗고, 빨강, 갈색 돛을 단 배들이 정박해 있었으며, 고풍스러운 지붕들이 덮인 갈색 벽돌 집들 앞에는 언덕과 그림처럼 아름다운 포도밭이 펼쳐졌다. 작은 광장에 놓인 우스꽝스러운 바로크 양식의 동상들 아래에는 새들이며 연인들, 곤충들, 어린이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도리메어에서 중요한 곳은 바로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두 개의 강이다. 그 중 하나인 대플 강은 서쪽 ‘논란의 언덕’을 지나 도리메어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이상하게 생긴 낯선 과일들이 대플 강물을 타고 동둥 떠내려왔다.

서쪽 요정들의 영리한 침략 작전과 그에 맞선 사람들, 시적인 묘사와 풍자, 유머가 가득한 소설

안개에 묻힌 루드 주민들은 몇 세기 동안 대플 강을 통해 유입된 그 과일을 최대한 열심히 모른 척 했다. 사실 도리메어는 요정의 나라에서 나온 그 과일을 먹어버렸던 오브리 공작을 쫓아내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용맹하고 사람들에게 존경 받던 도리메어의 옛 선조들은 마지막 남은 공작 오브리를 비롯해 마법을 믿는 존재들을 국경 밖 어딘가로 전부 내쫓음으로써 온통 마법이 판치고 혼돈이 가득했던 시대를 마감했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곳이 도리메어다. 그렇게 두 나라는 분리되었지만, 유일하게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대플 강이었다.

요정의 나라는 안개에 묻힌 루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먼 옛날처럼 마법으로 통합된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요정들은 한 입만 먹으면 머릿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법의 과일을 끊임없이 루드에 몰래 반입시키려 애쓰면서, 루드 시민들이 먹게끔 만드는데 열성을 쏟았다. 전혀 효과가 없어 보였던 그 작전은, 루드의 시장인 찬티클리어가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을 조사하느라 여념이 없던 틈에 조금씩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다. 법과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린 루드에서, 다시 마법의 힘이 먹혀드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

1926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고전 판타지 소설로, 요정의 나라에서 몰래 유입된 이상한 과일이 꿈쩍하고 희한한 효과를 발휘하는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유머, 시적인 묘사, 위협적인 존재들, 통렬한 비판이 고루 섞인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홉 멀리스(Hope Mirrlees)는 1887년에 태어나 1978년 세상을 떠난 영국의 작가이자 학자로, 버지니아 울프, T.S. 엘리엇과 블룸스버리 문학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구로 지냈다. 《One of Life's Jansenists》(1921), 《The Counterplot》(1924)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제목 : ONE SMALL ACT OF KINDNESS

가제 : 사소한 선의의 행동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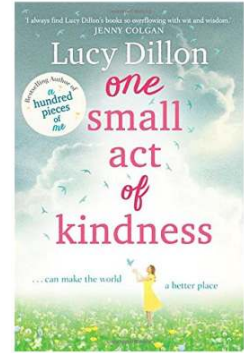
저자 : Lucy Dillon

출판사: Hodder Paperback

발행일: 2015년 4월 23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소설



시골 마을 호텔 앞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 호텔 여주인과 신원 미상 여자의 예기치 못한 우정

런던을 떠나 롱햄프턴에 정착한 리비와 제이슨. 신혼부부인 두 사람은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멋진 호텔로 개조하는 일에 몰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버리고 떠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사실 리비는 가끔 불안감을 느낀다. 둘이 런던을 떠나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이슨 때문이었지만 그는 생각만큼 호텔 리모델링 일을 잘 도와주지 않았다. 게다가 고압적인 태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는 아들 귀한 줄만 아는 고집불통 노인이라 제이슨의 편만 든다. 딱히 친한 친구도 없는 리비는 타고난 성실함을 발휘하며 꿈에 그리던 세련되고 로맨틱한 호텔을 만드는 일에 몰입하지만, 이렇게 혼자 애쓰는데 과연 공사가 끝나는 날이 오거나 할까 확신할 수 없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호텔 바깥에서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난다. 이상한 소리에 리비가 서둘러 나가보니 어떤 여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영겁결에 리비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그녀와 병원까지 동행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자에 관한 정보가 담긴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호텔 앞에서 일어난 사고라 혹시 투숙객으로 예약을 했나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지갑도, 휴대전화도, 신분증도 없이, 여자의 목걸이 펜던트가 알파벳 'A' 모양이라는 것, 그리고 여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나온, '스완 호텔, 로즈힐 로드, 롱햄프턴'이라고 적힌 메모지 하나가 그녀에 관한 단서의 전부였다.

친구가 필요했던 여자와 기억을 잃어버린 여자의 진한 우정, 작은 선의에서 시작된 엄청난 변화

급기야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찾은 A는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상실 진단을 받는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에 살았는지, 왜 롱햄프턴까지 온 건지 실마리도 잡지 못한다. A는 머리가 심하게 지끈대고 마음 속에서 뭔가가 미끄러지는 느낌만 날 뿐, 완전히 백지가 된 기분이었다. 다행히 의사는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니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심각한 뇌 손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 며칠이 지나도 A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은 리비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곳에 자신이 왜 왔는지도 몰라서 잔뜩 겁 먹은 A를 보고, 안쓰러워 결국 그녀를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된 리비와 A, 두 여자 사이에서 진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별 것 아닐 수 있는 선의에서 비롯된 이 사소한 친절이 여러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여러 사건들의 시초가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기억을 완전히 잃었던 여자는 호텔에서 지내면서 서서히 자신의 이름이 피파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몇 가지 다른 기억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려고 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된다. 그녀가 찾으려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리비와 수수께끼 가득한 또 한 명의 여자 A, 낯선 사람에게 우연히 베푼 친절, 예고 없이 찾아온 우정, 비밀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루시 딜런(Lucy Dillon)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한 작가로, 2010년 《Lost Dogs and Lonely Hearts》로 ‘로맨스 소설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 외 《The Ballroom Class》, 《Walking Back to Happiness》, 《The Secret of Happy Ever After》, 《A Hundred Pieces of Me》 등을 발표했다.

제목 : GARGOYLE HUNTERS

가제 : 가고일 사냥꾼

저자 : John Freeman Gill

출판사: Knopf

발행일: 미정

분량 : 약 400페이지

장르 : 소설



어린 시절부터 뉴욕에 남다른 애정을 품은 소년, 옛 건축물의 복원에 열정을 쏟았던 그의 이야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는 뉴욕 거리. 귀를 찢을 듯 울려대는 구급차 소리가 연신 들려오고, 서둘러 회전문을 밀고 인파 속으로 나오는 직장인들과 도심 곳곳을 누비는 수많은 사람들로 항상 혼잡한 뉴욕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한 남자가 그 남다른 애정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1974년, 그가 열세 살이던 그 해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에 관한 기억과 폐허 더미로만 머물렀을지 모를 유서 깊은 건축물을 향한 그의 별난 관심, 그로 인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핀이 처음 맨해튼에 처음 사랑을 느낀 건 갓 다섯 살이 된 1965년, 엄마 아빠 누나를 비롯해 부모님의 지인들과 함께 어딘가로 소풍을 떠났던 날부터였다. 소풍 장소는 오직 아빠만 알고 모두 아버지 차만 줄줄이 뒤따라가면서 차 여러 대를 나눠 탄 사람들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핀은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에서 즐겁게 수다 떠는 엄마와 누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온통 정신이 팔렸다. 마침내 아빠는 습지와 기다랗게 자란 풀들이 가득한 곳에 차를 세웠다. 해가 서서히 습지 가장자리로 얼굴을 내밀 때, 일행은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풀밭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리고 모두의 눈 앞에 이곳 저곳 무너진 거대한 옛 건축물이 나타났다. 옛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기둥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고 부서지고 방치된 돌무더기도 가득한 곳.空空 숨어 있던 먼 옛날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낸 듯한 그곳에서 즐거운 피크닉이 시작됐다.

그리핀은 그날 하얀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허리춤에 댄 노란색 스카프를 잊지 못한다. 탁 트인 하늘 아래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진 피크닉 음식들 속에 환하게 웃고 있던 엄마의 얼굴. 누나가 다른 아이들과 고대 기둥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이, 그리핀은 젊은 부부와 함께 아버지의 안내로 초대형 시계를 보러 탐험에 나섰다. 등직한 대장인 아빠를 따라 얼마간 걸어가니 그리핀의 키 두 배는 되는 큼직한 시계가 흙 속에서 파묻혀 있었다. 시계바늘은 다 사라지고, 금속으로 된 시계판 숫자들 중에 그나마 멀쩡한 ‘1’를 엄마에게 갖다 줄 기념품으로 떼어낸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손을 맞잡고, 다시 소풍지로 돌아왔다.

1970년대 맨해튼의 모습과 다양한 건축 양식, 유서 깊은 건축물과 그에 얽힌 한 남자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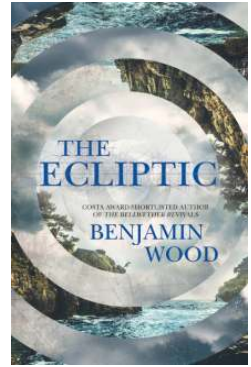
거의 다 왔을 때, 아빠는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눈 앞에는 분명 엄마 허리에 매어져 있던 그 노란 스카프가 기둥에 매어진 채 홀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유난히 신이 난 듯한 엄마의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간간히 들려왔다. 하지만 그리핀이 문득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자 좀 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만만한 대장의 얼굴이 아닌, 더없이 수척하고 나약해진 낯선 얼굴. 너무 어렸던 그리핀은 무슨 일인지 사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부모님의 변화는 결국 별거로 이어졌고, 그리핀은 누나와 함께 엄마와 살게 되었다. 열세 살이 된 어느 날, ‘프라이스 씨’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엄마 곁을 얼렁대기 시작했다.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도 ‘신문’ 관련 일을 한다고만 둘러대는 이상한 아저씨.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건축에 조예가 깊었던 아버지 덕분인지, 혹은 집을 떠나 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리핀은 늘 뉴욕 곳곳에 남은 옛 건축물과 시대 한복판에 자리한 다채로운 건물들의 양식에 큰 호기심을 느꼈다. 그런 그리핀의 눈을 통해, 1970년대 맨해튼의 생생한 풍경 속에서 옛 건축물의 불법적인 보존에 열정을 쏟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존 프리먼 길(John Freeman Gill)은 뉴욕 토박이로 <뉴욕타임스>에 오랫동안 글을 기고했다. 뉴욕에 관한 그의 수많은 글들은 두 권의 책으로 엮어서 발표되기도 했다.

제목 : THE ECLIPTIC
가제 : 일식
저자 : Benjamin Wood
출판사: Scribner UK
발행일: 2015년 7월 2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소설



데뷔소설로 프랑스 최고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두 번째 소설, 위대한 작품을 향한 예술가의 삶

데뷔소설 《The Bellwether Revivals》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2014년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Le Prix du Roman FNAC’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쥔 벤자민 우드가 두 번째 소설을 완성했다. 사랑과 집착, 창의성, 관계의 분열을 다루었던 데뷔 소설은 책벌레 소년 오스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 홀로 캠브리지에 살고 있는 오스카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면서, 은퇴한 교수 브램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깊은 학문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러다 킹스 칼리지에 다니는 아름답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여학생, 벨웨더를 만나면서 오스카의 인생은 뒤엎지기 시작한다.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이유로 특권을 누리는 지식인들의 삶에 매료된 오스카에게 벨웨더의 오빠인 이든도 접근한다. 영민한 두뇌를 지녔지만 끊임 없이 말썽을 일으키던 이든은 재능 많은 음악가로,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괴짜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여동생 그리고 친구 몇몇과 모여 오스카를 ‘돕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오스카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상한 실험들을 시작하고, 영문을 모르던 오스카가 그들의 위험성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후였다.

이 독특한 데뷔 소설에 이어 벤자민 우드가 두 번째로 완성한 소설 역시 시작부터 순식간에 독자의 마음을 빼앗는 묘한 매력이 가득하다. 무대는 터키의 작은 섬 포트맨틀.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사면초가에 몰린 예술가들을 위한 독특한 시설이 하나 있다. 한 때 유명한 화가며 극작가, 건축가, 소설가, 시인, 음악가였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창작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예술가들이 모여 잃어버린 재능을 되찾고 죽어가던 작품 활동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희망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되고, 오직 초대를 통해서만 입주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예술가들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듯 따라다니던 정체성을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가명을 사용한다. 엘스페스 콘로이도 이곳에 머무르는 예술가 중 한 명이다. 한 때 벽화 화가로 큰 명성을 날리던 그녀는 흔들림 없이 믿었던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느끼고 이곳에서 ‘넬’이라는 가명으로 몇 년째 살고 있다. 넬은 매일 밤, 불빛 하나 들지 않는 컴컴한 작업실에서 새로운 물감을 만드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수수께끼 같은 그 물감을 완벽하게 완성한다면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림 세계가 다시 예전

처럼 또렷해지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외딴 섬 예술가들의 피난처에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면서 벨의 일상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길 잃은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터키의 외딴 섬, 재능 있는 소년이 찾아오면서 시작된 사건들

낮선 입주자는 온 얼굴에 우울한 기운이 내려 앉은, 새파랗게 어린 십대 소년 폴러톤이었다. 겨울 한 철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다는 그 아이는 벨의 차분한 일상을 순식간에 영망으로 만들더니,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까지 시험하며 신경을 잔뜩 곤두서게 한다. 그런데 벨은 성가시기만 하던 폴러톤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소년의 재능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폴러톤은 그 무서운 꿈 때문에 빈번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벨의 판단처럼, 악몽에 사로잡힌 폴러톤을 구해낼 사람은 오직 벨 밖에 없다. 대체 이 소년은 어디에서 왔고, 왜 ‘일식’에 대해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벨이 떠나온 영국에서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950년대 후반 런던 예술계와 시간이 모두 멈춘 듯한 터키의 신비한 섬을 배경으로 위대한 작품, 위대한 재능을 향해 비틀대며 나아가는 예술가들의 삶을 그린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벤자민 우드(Benjamin Wood)는 캐나다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우고 예술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런던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MAN (DIS)CONNECTED

가제 : 단절된 남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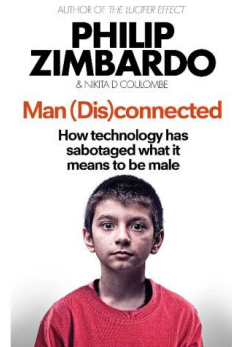
저자 : Philip Zimbardo, Nikita Coulombe

출판사: Rider & Co

발행일: 2015년 5월 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사회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분석한 현대 사회 남성성이 위기를 맞게 된 실태와 원인, 해결책

젊은 남성들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지금만큼 추락한 적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두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남성성이 초유의 위기에 다다른 까닭을 이 책에서 짚어 본다.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급변하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새롭고 낯설다. 하지만 젊은 남성들은 유독 뒤쳐지고 있다. 여성들과 달리,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업에 의욕을 잃거나, 정서적인 괴로움을 겪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급기야 불법 조직에 가담한 젊은 남자가 누구든 주변에 한 명 이상은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 이유와 책임을 그들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예로부터 서구사회에서는 남성이 강직하고 상황을 주도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 더 넓게는 국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타인과 협력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젊은 남성들이 이 목표에 열정이나 흥미를 갖게끔 지원하지도, 그럴 만한 수단이나 장소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치, 대중매체, 학교, 심지어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젊은 남성의 지적, 창의적, 사회적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두 저자는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진 가정, 여성들에게 호의적인 법률,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술과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는 많은 남성들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더불어 하드코어 포르노와 흥미진진한 가상현실 게임이 남성들에게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섹스와 스포츠, 사회적 관계보다 덜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더 매력적으로 인지되어 결국 얼굴을 맞대야 하는 대인관계를 대신해 버린 실태를 꼬집는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이러한 대체 요소에 깊이 빠져들면서, 젊은 남성들의 인지 발달은 저해되고 집중력, 사회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들은 사회적 기술이 성공의 핵심인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남성들과의 격차는 점점 심화된다. 두 저자

는 이와 같은 암울한 실태를 ‘증상’과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목차>

1부: 증상

1. 교육을 향한 환멸
2.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남성들
3. 과도한 남성성: 사회적 강도 증후군
4. 과도한 게임: 침실에서 우주를 지배하다
5. 비만
6. 과도한 포르노 활용: 언제든 가능한 오르가즘
7. 삶에 취해, 무엇에든 취해: 의약품, 불법 약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2부: 원인

8. 지휘자가 사라진 가족, 아버지의 부재
 9. 학교에서 만나는 실패
 10. 환경 변화
 11. 기술에 빠진 정신, 자극 중독
 12. 신 포도: 자격 vs. 현실
- ... (이하 생략)

3부: 해결책

16.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17. 학교가 할 수 있는 일
 18.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19.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
-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71년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주도했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예일, NYU,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2002년 미국 심리학회(APA) 학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The Lucifer Effect(루시퍼 이펙트)>, <The Time Paradox(타임 패러독스)> 등의 대표작들이 있다.

니키타 D. 쿨롬브(Nikita D. Coulombe)는 작가, 화가로 활동 중이다. 필립 짐바르도와 함께 TED ebook 《Demise of Guys: Why Boys Are Struggling and What We Can Do About It》을 공동 집필했다.

제목 : FAMOUS WORKS OF ART AND HOW THEY GOT THAT WAY

가제 : 무엇이 예술품의 인기를 좌우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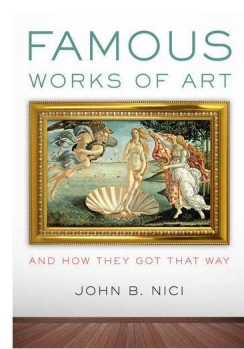
저자 : John Naci

출판사: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발행일: 2015년 9월 1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예술



긴 세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20편의 예술작품들, 그 인기의 비결을 분석하다

훌륭한 미술관과 위대한 미술작품들은 세계 어디에나 가득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분명 여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그림은 세심하게 디자인된 전시실에서, 모나리자의 영향력을 선보이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전혀 활용될 것 같지 않은 박물관의 그 전용 공간을 독차지한 채 그칠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모나리자를 이토록 유명하게 만들고, 이런 찬사를 받게 했을까? 모나리자처럼 오랜 세월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크스가 그토록 위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몽크의 ‘절규’와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 대중문화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오랫동안 일반 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사진, 조각, 회화 작품 스무 편을 선정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명한 작품이 된 이유와 작품의 품질은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예술적 가치 면에서 부조화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작품의 명성을 키웠다고 해석한다. 투탕카멘 무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모’,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비롯하여 고대 공예품부터 앤디 워홀의 수프 깡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예로 제시하며, 저자는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던진다. 작품을 홍보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 능력은 작품 속 대상을 향한 작가의 흥미를 표현한 기술의 힘을 초월할까?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들은 그저 순수하게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자는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을 선정하기보다는, 각 작품이 이토록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된 다양한 과정과 경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와 과정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다. 중요한 공통점은 번덕스럽기로 유명한 명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인기의 기반을 굳혔다는 점,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왜 꾸준히 명성을 유지하는 작품들과 달리, 어떤 작품은 잊혀지고, 버려지고, 심지어 한 때 얻었던 명성을 잃어버릴까? 풍부한

한 정보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접목시켜 예술사를 진지하게 탐험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끈 핵심 재료를 탐구한 책이다.

<목차>

1. 대스핑크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
 2. 투탕카멘 무덤: 정치, 민족적 자긍심, 말벌, 죽은 카나리아, 그리고 저주
 3.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작품: 엘긴 경의 이야기와 그리스가 대리석 조각을 잃어버린 까닭
 4. 벨베데레의 아폴로: 아폴로 벨베데레의 흥망성쇠
 5. 사모트라케의 니케: 계단의 승리
 6.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영원한 것은 없다, 무시도 영원하지 않다
 7.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미소 하나의 힘을 그 누가 알았으랴
 8. 라파엘, ‘시스티나 성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림
-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존 니키(John Nici)는 뉴욕 쿤스 칼리지에서 예술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GODS OF THE MORNING

가제 : 아침의 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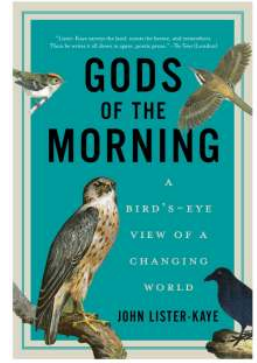
저자 : John Lister-Kaye

출판사: Pegasus

발행일: 2015년 8월 1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40년간 자연 속에서 살아온 동식물 전문가, 그가 전하는 사계절 자연 속 생명체들의 미묘한 변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현장 연구센터가 자리한 스코틀랜드 아이가스. 저자는 이곳에서 새와 벌, 꽃과 나무의 모습이 사계절을 따라 바뀌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배운 자연의 부지런함과 자연이 주는 감동을 애정과 지혜를 담아 이 책으로 기록했다. 스물 아홉 개의 동지로 가득 채워진 떼까마귀 서식지, 겨울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면 소리로 알려주는 새들, 겨울을 준비하며 여우의 발자취를 쫓아 눈 속을 헤매는 숲 쥐와 다람쥐까지, 페이지마다 자연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저자가 특히 사랑하는 새들이 있다.

총 열아홉 편의 에세이를 통해 저자는 새들이 기후와 인간의 행동 변화에 재빨리 반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의 성공과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은 거의 감지하지도 못하는 빛과 날씨의 미세한 변화가 거위 등 철새의 이동 패턴과, 떼까마귀 같이 철새가 아닌 새들 모두에게 동지를 형성하는 패턴 등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생하게 설명한다. 극한의 기온은 새의 개체 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저자는 2009-2010년 겨울, 석 달 동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자, 척박한 환경도 잘 견디는 아이가스 지역의 외양간울빼미가 굶주린 나머지 쥐와 두더지를 잡기 위해 지하로 몸을 피하는 일이 생긴 사례를 실감나게 들려주고, 전기 배전선 설치 등 인간의 개입이 새의 생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인지 서서히 죽어간 큰 백조 등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화학 비료, 살충제, 기계 장비를 동원한 농업 역시 새들의 먹이인 곤충과 벌레를 몰살시켜 새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도 저자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스코틀랜드 최초의 현장 연구소로 설립된 아이가스 센터에서 저자가 애정을 담아 보살피고 관찰한 동물들을 시적으로 묘사한 글 속에는, 인간으로 인해 파괴되는 동물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과 슬픔도 가득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과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희망도 빼놓지 않는다. 새를 중심으로 자연의 생각을 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묘사하면서 저자가 40년 가까이 살고 일한 아이가스의 다채로운 풍경과 생명체들을 소개한 책이다.

<목차>

1. 검은머리꼬꼬리

2. 일년 중 그 때
 3. 구름의 위대한 증언
 4. 그리고 그곳엔 때까마귀가 있었다
 5. 눈 위에 선명한 자국
 6.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백조
 7. 태양이 정지한 날
 8. 산꼭대기의 신들
 9. 개의 삶
 10. 부엉이에 관한 기억
 11. 기나긴 기다림
 12. 태양의 거친 입맞춤
-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존 리스터-케이(John Lister-Kaye)는 영국 최고의 동식물 연구가이자 환경보호 활동가로, 2010년 출간된 《At the Water's Edge》 등 야생동물과 환경에 관한 저서를 다수 발표했다.

제목 : IS NOTHING SOMETHING?

가제 : 무(無)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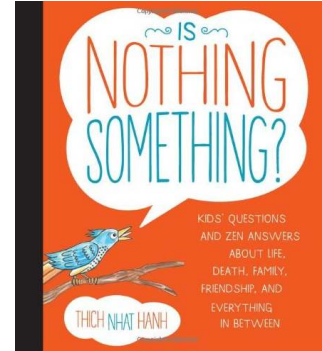
저자 : Thich Nhat Hanh

출판사: Plum Blossom Books

발행일: 2014년 4월 15일

분량 : 40 페이지

장르 : 종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삶과 세상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과 틱낫한의 대답

세계 4대 생불로 추앙 받는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낫한 스님이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에게 직접 들은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때로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모아서 각양각색 그림과 함께 책으로 엮어내었다. 이 책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마음챙김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형제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저는 얼마나 오래 살게 되나요?”, “신은 어떻게 생겼어요?”와 같은 질문처럼 어른들도 늘 고민하는 궁금증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틱낫한 스님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짧막한 대답들이 함께 제시되고, 책 뒷부분에는 어린이를 위한 마음챙김 호흡법과 명상하며 걷기에 관한 설명, 실천 방법이 나와 있다.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 온 틱낫한 스님이 이 책에서 제시한 답은 기본적으로 불교가 바탕이지만, 종교의 색채보다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우선시하고 어떠한 판단도 배제한 객관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아이들을 위한 답변이지만 결코 질문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처럼 다루지 않으며, 수준을 낮추어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답변이 많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느껴지기보다는 친절, 사랑, 연민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단순한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삶과 죽음,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단순하면서도 평화롭게, 명상하듯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틱낫한 스님은 질문이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온 궁금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님이 아이들에게 직접 듣고 최선을 다해 답을 주었던 이야기 속에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아이들과도 마주 앉아 함께 호흡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의 존재임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의 연속체임을 깨달은 스님의 깊은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질문이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좋은 답을 주고 싶은 어른들, 스스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삶의 온기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목차>

세상은 왜 존재하나요?

무(無)가 뭐예요?

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저는 얼마나 오래 살게 되나요?

태양은 왜 그렇게 뜨거운가요?

마음챙김이 무엇인가요?

기분 좋은 날과 기분 나쁜 날은 왜 있을까요?

재활용은 왜 해야 하나요? 그냥 버리면 안 되나요?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요?

전 할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는 나쁜 것들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먹을 수 있나요?

나와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은 불교 승려이자 시인, 학자, 인권운동가로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Planting Seeds and Each Breathe a Smile》 등 저서를 100권 이상 발표했으며 그 가운데 60권은 영어 저서이다. 현재 프랑스의 명상 센터인 플럼 빌리지에 거주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마음챙김의 삶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제목 : WIN WIN / LEADING CONSTANT CHANGE

가제 : 윈윈 / 즉각적인 변화를 이끄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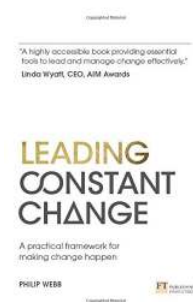
저자 : Derek Arden / Philip Webb

출판사: FT Press

발행일: 2015년 7월 30일 / 2015년 1월 9일

분량 : 296 페이지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1. 윈윈 (WIN WIN)

협상의 근간에는 심리학적 원칙이 숨어 있다. 그리고 협상은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25년간 성공적인 협상을 일궈온 전문가인 이 책에서 11단계로 구성된 실용적인 협상 과정을 소개하고 상호 협의라는 결과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일년 열두 달 늘 협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협상을 하도록 타고난 존재이며, 어린 아이들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와 협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까다로운 협상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즉 협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저자는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을 제시한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지루한 의논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 갈등과 의견 불일치 상황을 피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잘 다루는 법, 원하는 것을 얻고 설득력을 높이는 법,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바라던 결과를 획득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목차>

제 1부. 협상은 왜 중요한가

- 1장. 우리는 모두 협상가다
- 2장. 협상하지 않는 대가
- 3장. 윈윈 전략
- 4장. 나의 협상 기술은 몇 점일까?
- 5장.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2부. 협상의 11단계

- 6장. 준비와 계획
- 7장.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라
- 8장. 올바른 질문을 하라 ... (이하 생략)

2. 즉각적인 변화를 이끄는 법(LEADING CONSTANT CHANGE)

모든 경영자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를 위

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실천하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길어야 1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중견 기업이든 신생 기업이든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커녕 변화를 해야 할 시점에 마치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인 것처럼 주춤대기 일쑤다. 저자는 25년 이상 수백 곳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변화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잠재우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변화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총 15단계로 구성된 이 계획 속에는 효과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비법과 흔들림 없는 변화 전략 세우는 법, 사람들이 계획에 참여하고 의욕을 갖도록 만드는 법,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하나 소개된다.

<목차>

1부 -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 1장. 왜 변화가 필요한가?
- 2장. 변화는 왜 이토록 힘든가?
- 3장.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 4장. 변화의 틀은 어떻게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2부 -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15단계

- 1단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전략
- 2단계. 변화 계획을 전담한 팀을 꾸려라
- 3단계. 전략을 널리 알려라
- 4단계. 직원들이 제대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 5장. 변화의 계획을 파악하라
- 6장.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라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데렉 아덴(Derek Arden)은 협상 전문가로 전 세계 다양한 협의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 중이다. 27개국을 돌며 협상을 이끌어 왔으며 경영대학원 다섯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헨리 비즈니스 칼리지에서는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다.

필립 웹(Philip Webb)은 'TAM (UK) plc.'의 CEO로 민간업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인적자원의 변화 관리를 돕고 있다.

제목 : EMOTION CODE

가제 : 감정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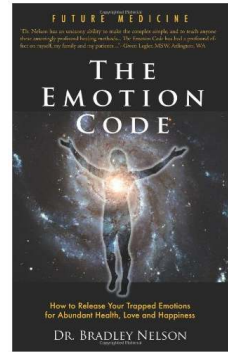
저자 : Bradley Nelson

출판사: Wellness Unmasked Publishing

발행일: 2007년 6월 15일

분량 : 383 페이지

장르 : 건강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케케묵은 감정, 질병과 건강한 사고를 가로막는 감정들을 내보내는 방법

감정은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색깔을 입힌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경험을 나란히 줄지어 놓았을 때 무채색이 아닌 알록달록 저마다 색깔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일에 대한 ‘감정’이다. 만약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한다면, 슬픔, 비통함,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즐거움, 행복, 친절과 같은 좋은 감정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과연 부정적인 감정들은 아예 느끼지 않는 편이 나을까? 인생에는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 불안과 좌절, 두려움, 슬픔에 휩싸이고 자신감, 희망을 다 잃어버린 듯한 감정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문제는, 과거에 경험한 그 감정들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품고 사는 케케묵은 감정들, 그것을 찾아내서 속 시원히 내보내는 방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가지 못하고 ‘덧에 걸린 듯’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갇혀 있는 나쁜 에너지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전인적 의료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는 무의식의 마음 속에서 나쁜 감정이 어떻게 갇히고 머무르는지 그 내적 작용을 하나하나 벗겨낸다. 과거에 엄청난 감정적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내면에 갇히면, 우리 몸의 각종 통증과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이 갇힌 에너지는 신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선택, 궁극적으로는 인생 전체의 성공까지 좌우할 수 있다.

저자는 방출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심장 주변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심장의 벽’을 형성하여 사랑을 편안하게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며, 내면에 갇혀 있는 이 부정적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감정 코드’에 대해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꽁꽁 동여매고 있는 봉대를 풀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저자는 환자들과 만나 실제로 묶인 감정에서 풀려난 후 건강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자기 파괴적인 대인관계의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경우를 수 차례 목격했고 그 사례도 이 책에서 제시한다. 감정이 만든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건강과 삶의 지침서다.

<목차>

1부. 갇혀 있는 감정들

갇혀 있는 감정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갇힌 감정들의 숨겨진 세상

2부. 에너지 넘치는 세상

에너지 회복을 돕던 고대 치유자들에 관한 미스터리

내 안의 자석을 이용한 치유 방법

3부. 감정 코드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라

갇혀 있는 감정을 내보내라

심장을 둘러싼 벽

대리, 위임권, 그리고 원격 힐링

감정 코드와 동물

4부. 보다 밝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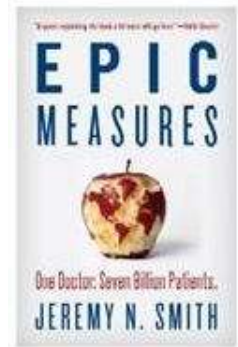
갇힌 감정이 없는 삶

<저자 소개>

브래들리 넬슨(Bradley Nelson)은 ‘라이프 카이로프랙틱 칼리지 웨스트’를 졸업하고 만성 질환의 자연 치유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 ‘HealersLibrary.c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강연하면서 바이오에너지 의학, 에너지 심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뉴스레터 도서 업데이트>

제목 : EPIC MEASURES
가제 : 70억의 환자와 한 명의 의사
저자 : Jeremy Smith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5년 4월
분량 : 288페이지
장르 : 의학, 경제, 사회



2014년 8월 20일에 소개된 이 도서는 보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머레이의 질병 부담 연구 업적과 생애를 다룬 도서로, 빌 게이츠와 에드워드 윌슨이 극찬한 도서로, 뉴욕타임즈, CNN 등 많은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다.

<https://twitter.com/BillGates/status/619492833683210240>

<http://nyti.ms/1yEZLcX> / <http://nyti.ms/1LcT5wL>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15/04/09/turning-to-big-big-data-to-see-what-aills-the-world/?smid=pl-share&r=0](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15/04/09/turning-to-big-big-data-to-see-what-ails-the-world/?smid=pl-share&r=0)

<http://edition.cnn.com/videos/tv/2015/05/02/exp-gps-0503-witw-global-disease.cnn>

인류의 건강 위협 요소 모두를 엮어내려는 대담한 시도

내가 응원하는 야구 팀이 우승할 확률부터 한 사람의 기대 수명과 유전적 형질까지 무엇이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다. 2010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5천6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으나 192개국 중 169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사망증명서가 없다고 한다.

건강문제를 지표화하기 위한 척도는 크게 두 가지다. 수명과 사망 원인. 그런데 이 두 가지 척도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다.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일지라도, 평소에 빈혈을 앓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심한 근사이거나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들며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추는 질병들이다. 따라서 잘 살고(well-being), 잘 죽기(well-dying) 위해서는 그것이 직접 사인이 되든 아니든 질병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정확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저자 제러미 스미스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 크리스 머레이(Chris Murray)와 손을 잡고 전 세계 70억의 (환자)인구를 대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차트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 연구의 제목이 바로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이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리고 결국 그 병으로 어떻게 건강을 위협받으며 죽어가는지, 단순한 통계 자료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질병 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되는 인류의 건강 문제

전 세계 건강 문제는 무엇이며 누가 얼마나 왜 아프는가?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해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시각으로 과학적이며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단순히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인 제러미 N. 스미스(Jeremy Smith)의 데뷔작 <Growing a Garden City>는 2011년 북 리스트 환경 부문 10위권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Discove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the Chicago Tribune>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Harvard College and the University of Montana를 졸업하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이코노미스트인 Christopher Murray를 만나 <EPIC MEASURES>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